

2025 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메시지 9

빛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할당된 몫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림

성경: 골 1:12-13, 눅 11:33-36, 욥 42:5-6, 사 2:5, 4:4, 5:20, 6:1-8, 시 139:23-24

[골 1:12-13] 여러분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sup>(13)</sup>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눅 11:33-36]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 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도록 합니다. <sup>(34)</sup> 그대의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대의 눈이 단일하면 온몸이 밝지만, 그대의 눈이 악하면 온몸이 어둡습니다. <sup>(35)</sup> 그러므로 그대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sup>(36)</sup> 그대의 온몸이 밝아 어두운 부분이 조금도 없다면, 등불이 그 빛을 그대에게 비출 때처럼, 온몸이 온전히 밝을 것입니다.”

[욥 42:5-6] 제가 주님께 대해 귀로만 들어 왔으나 /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보았습니다. (6) 그러기에 제 자신을 혐오하며 /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사 2:5] 야곱 집아, 와서 여호와와 빛 안에서 행하자.

[사 4:4] 그때 주님은 심판하시는 영과 불태우시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 내시고 예루살렘의 핏자국을 그 가운데서 깨끗하게 없애실 것이다.

[사 5:20] 악을 선이라 하고 / 선을 악이라 하는 이들, / 어둠을 빛에 두고 / 빛을 어둠에 두는 이들, / 쓴 것을 단것에 두고 / 단것을 쓴 것에 두는 이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사 6:1-8] 웃시아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보았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드리워져 있었다. <sup>(2)</sup>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떠 있었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서 나머지 둘로 날고 있었다. <sup>(3)</sup> 그들이 서로를 향하여 부르며 말하였다. /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 /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여라.” <sup>(4)</sup> 부르는 이의 음성에 문지방의 기초가 흔들렸고, 집은 연기로 가득 찼다. <sup>(5)</sup> 그때 내가 말하였다. / “내게 화가 있겠구나, 내가 이제 죽게 되었음이라! / 내가 입술 부정한 사람이요 / 입술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하면서 /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 눈으로 보았음이라!” <sup>(6)</sup>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왔다. <sup>(7)</sup> 그가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 “이제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 너의 죄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정결하게 되었다.” <sup>(8)</sup>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랴? 누가 우리를 위해 가랴?”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 주십시오.”

[시 139:23-24] 오, 하나님! 저를 살피시고 제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 저를 시험하시고 제 근심을 알아주십시오. <sup>(24)</sup> 제게 무슨 해로운 길이 있는지 보시고 / 저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 I. 으뜸이시며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신 그리스도는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이시다(골 1:12). 신약의 믿는 이들에게 할당된 몫은 물질적인 땅이 아닌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이다(갈 3:14, 딤후 4:22, 롬 8:16). 이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신약의 중심적이고 중대한 요점이다(골 2:6-7, 빌 1:19).

[골 1:12] 여러분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갈 3:14]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이를 수 있도록, 즉 약속하신 그 영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딤후 4:22]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롬 8:16]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골 2:6-7] 여러분이 그리스도, 곧 주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sup>(7)</sup> 그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건축되고 있으니,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이 견고해져서 감사가 넘쳐 나게 하십시오.

[빌 1:19]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 II. 우리는 좋은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방면과 낳는 방면에서 그분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빛 가운데' 있어야 한다 — 골 1:12-13, 출 3:8, 벨전 2:9, 사 2:5.

[골 1:12-13] 여러분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sup>(13)</sup>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출 3:8]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 내어, 그들을 그 땅에서 좋고 넓은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벨전 2:9]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받은 족속이고, 왕들인 제사장 체계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자신의 기묘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미덕들을 널리 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 2:5] 야곱 집아, 와서 여호와와 빛 안에서 행하자.

### A. 하나님은 빛이시고(요일 1:5),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시 119:105, 130), 그리스도는 빛이시고(요 8:12, 9:5), 그리스도의 생명은 빛이고(요 1:4), 믿는 이들은 빛이고(마 5:14, 빌 2:15), 교회는 빛을 비추는 등잔대이다(계 1:20, 시 73:16-17).

[요일 1:5] 우리가 그분께 듣고서 여러분에게 전해 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시 119:105] ı (눈) / 주님의 말씀은 제 발의 등불이요 / 제 길의 빛입니다.

[시 119:130] 주님의 말씀들이 열리면 빛이 비치어 / 단순한 이들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요 8:12]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요 9: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요 1:4]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마 5:14]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에 있는 성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빌 2:15] 그것은 여러분을 나무랄 데 없고 순결하게 하여,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대 가운데서 세상의 발광체들로 빛나서

[계 1:20]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과 일곱 금등잔대의 비밀은 다음과 같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전달자이고,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이다.

[시 73:16-17] 제가 이 일을 이해하려고 깊이 생각할 때에 / 그것이 제가 보기에 괴로운 일이었으나<sup>(17)</sup>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B. 진리는 빛의 비춤이고 빛은 하나님의 임재이다. 만일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 사물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과 예지와 내적 인식이 있게 된다. 주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다 — 출 33:14, 고후 2:10.

[출 33:14]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고후 2:10]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누구를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서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용서한 것인데,

- C. 우리 하나님의 공활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돕는 해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 그분은 돕는 해로서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우리의 발을 평안의 길로 안내하신다 — 눅 1:78-79.

[눅 1:78-79]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공활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온 것이다. 이로써 돕는 해가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임하여, <sup>(79)</sup>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우리의 발을 평안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

- D.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어 우리를 치료하시는 의의 해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 비춤을 누릴 때 어둠을 쫓아내는 면에서 생명 안에 성장할 수 있고, 불의를 없애는 면에서 생명 안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 말 4:2, 시 84:11.

[말 4:2]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치료하는 날개를 지니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 잘 먹인 송아지처럼 될 것이다.

[시 84:11]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 / 여호와는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 올곧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 E. 그리스도는 어둠 속에서 빛나고 속박에서 해방해 주는 큰 빛이시다 — 사 9:1-5, 마 4:12-16, 요 1:4-5, 벰전 2:9, 골 1:12-13, 시 119:105, 107:10-22.

[사 9:1-5] 그러나 고통이 있던 그곳에 암울함이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니, 그분께서 전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으나, 나중에는 해변 길과 요단강 건너편과 민족들의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 <sup>(2)</sup>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 큰 빛을 보았고 / 죽음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 빛이 비쳤다. <sup>(3)</sup> 주님께서 이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고 / 그들의 기쁨을 증가시켜 주시니 / 그들은 수확의 기쁨에 겨운 듯, /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 주님 앞에서 기뻐합니다. <sup>(4)</sup> 주님께서 그들의 무거운 멍에와 / 어깨 위에 있는 지팡이와 / 억압하는 이의 막대기를 / 미디안의 날에 하셨던 것처럼 부수시는 까닭입니다. <sup>(5)</sup> 전쟁의 소동 가운데 짓밟는 이들의 / 모든 군화와 / 피범벅 된 / 겹옷이 / 불에 타 / 불을 때는 땔감이 되고 맙니다.

[마 4:12-16] 예수님께서 요한이 붙잡혀 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sup>(13)</sup> 그리고 나사렛을 떠나시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서 사셨는데, <sup>(14)</sup> 이것은 신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다. <sup>(15)</sup>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 길, 요단강 건너편, 이방인의 갈릴리아, <sup>(16)</sup>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땅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마 1:4-5] 랍이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이 나손을 낳고, 나손이 살몬을 낳고, <sup>(5)</sup>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벧을 낳고, 오벧이 이새를 낳고,

[벤전 2:9]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받은 족속이고, 왕들인 제사장 체계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자신의 기묘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미덕들을 널리 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골 1:12-13] 여러분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sup>(13)</sup>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시 119:105] 1 (눈) / 주님의 말씀은 제 발의 등불이요 / 제 길의 빛입니다.

[시 107:10-22] 어떤 이들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살며 / 고통과 죄사슬에 묶여 있음은 <sup>(11)</sup>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 가장 높으신 분의 의결을 무시하였기 때문이라네. <sup>(12)</sup> 그러하였기에 그분께서 수고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니 / 그들이 넘어져도 도와주는 이 없었다네. <sup>(13)</sup> 이런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 그분은 곤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네. <sup>(14)</sup> 그들을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이끌어 내시고 / 그들의 줄을 끊어 버리셨다네. <sup>(15)</sup>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자애와 / 사람의 자손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sup>(16)</sup> 그분께서 쏜 대문을 부수시고 / 쇠 빗장을 꺾으신 까닭이라. <sup>(17)</sup> 어떤 이들은 잘못된 길을 가다가 어리석게 되었으며 /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통을 겪었다네. <sup>(18)</sup> 그들의 혼이 모든 음식을 거부하여 / 그들은 죽음의 문까지 이르렀다네. <sup>(19)</sup> 이런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 그분은 곤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네. <sup>(20)</sup> 자신의 말씀을 보내시어 그들을 치료하시고 /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셨다네. <sup>(21)</sup>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자애와 / 사람의 자손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sup>(22)</sup> 감사의 희생 제물을 바치며 / 기쁜 노래로 그분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여라.

- F. 그리스도께서 내적으로 비추시는 것은 그분이 구원하시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그분의 더 많은 목양 곧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부흥시키시고 신화하시는 것이 더 필요하다 — 고후 4:6-7, 말 4:2, 잠 4:18, 시 22 편 제목, 80:1, 3, 7, 15-19.

[고후 4:6-7]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sup>(7)</sup>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말 4:2]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치료하는 날개를 지니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 잘 먹인 송아지처럼 될 것이다.

[잠 4:18] 그러나 의인들의 길은 여명의 빛 같아 / 점점 더 밝게 빛나 한낮에 이른다.

[시 80:1] 요셉을 양 떼처럼 인도하시는 /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 기울여 주십시오. / 그룹들 사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시여,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시 80:3] 오, 하나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 주님의 얼굴을 비추시어 저희가 구원을 얻게 해 주십시오.

[시 80:7] 오, 만군의 하나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 주님의 얼굴을 비추시어 저희가 구원을 얻게 해 주십시오.

[시 80:15-19]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 주님 위하여 강하게 하신 아들을. <sup>(16)</sup> 이것은 불에 타 잘렸고 / 그들은 주님의 꾸짖는 얼굴 앞에서 멸망하오니 <sup>(17)</sup>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 위에, / 주님께서 자신 위하여 강하게 하신 사람의 아들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sup>(18)</sup>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님에게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 저희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sup>(19)</sup> 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 주님의 얼굴을 비추시어 저희가 구원을 얻게 해 주십시오.

- G. 우리의 생명의 성장을 위해 우리가 받아들이는 생명의 분량은 우리가 받은 빛 비춤에 상응한다. 빛이 비출 때만 생명을 산출할 수 있고 빛이 비출 때만 생명이 증가할 수 있다 — 고후 4:6, 창 1:1-3, 14, 시 36:9, 엡 5:13.

[고후 4:6]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 1:1-3]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sup>(2)</sup> 그러나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품고 계셨다. <sup>(3)</sup>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이 생기라.” 그러자 빛이 생겼다.

[창 1:14]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의 창공에 빛나는 물체들이 생겨 낮과 밤을 나누고, 표징과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

[시 36:9]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으니 /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봅니다.

[엡 5:13]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에 의해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들을 드러나게 하는 것마다 빛이기 때문입니다.

- H. 하나님께서 환경에서 오는 온갖 종류의 유혹과 어려움과 타격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온 것이라면 이 모든 상황을 통과한 후에도 여전히 남을 것이고 심지어 더욱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단지 인간적인 행위에서 온 것이라면 그 행위는 본성이 바뀌거나 제거될 것이다 — 고후 1:8-9, 12:7-9.

[고후 1:8-9] 형제님들, 여러분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에 겹도록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져, <sup>(9)</sup>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고후 12:7-9] 또한 내가 받은 계시들이 엄청나서 내가 너무 높아질까 봐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전달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나를 쳐서 내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sup>(8)</sup> 나는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도록 해 달라고, 이 일을 두고 주님께 세 번 간청하였습니다. <sup>(9)</sup>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장막으로 드리워지도록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

- I. 빛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이 말씀은 성경의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새롭게 계시한다 — 시 119:105, 130, 요 6:63, 엡 5:26-27, 아 8:13-14, 사 66:2, 5.

[시 119:105] 1 (눈) / 주님의 말씀은 제 발의 등불이요 / 제 길의 빛입니다.

[시 119:130] 주님의 말씀들이 열리면 빛이 비치어 / 단순한 이들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엡 5:26-27]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sup>(27)</sup>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 8:13-14] “동산들에 거하시는 이여, / 나의 벼들이 당신 목소리에 귀 기울이니 / 나도 그 목소리를 듣게 해 주세요. <sup>(14)</sup> 내 사랑하는 이여, 속히 오셔서 / 향기 그윽한 산들 위에 있는 / 가젤이나 젊은 수사슴처럼 되어 주세요.”

[사 66:2]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 이 모든 것이 생겨났다. 여호와와 선포이다. / 그러나 내가 이러한 사람을 굽어보리니 곧 가난한 사람과 / 통회하는 영을 가진 사람과 내 말에 떠는 사람이다.

[사 66:5] 여호와와 말씀에 떠는 너희들아 /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 “너희를 미워하는 너희 형제들이 /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며 /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시어 / 너희가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해 보아라.’ 하지만 /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리라.”

- J. 빛이 우리 속에 비출 때마다 그 빛은 우리에게 내적 인식을 갖게 한다. 따라서 우리는 빛이 우리의 내적인 감각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요 8:12, 32, 36, 롬 8:6, 엡 4:18-19, 5:8, 고후 2:13, 말 2:15-16.

[요 8:12]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요 8:32] 그러면 여러분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요 8:36] 그러므로 아들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면, 여러분이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롬 8: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엡 4:18-19] 그들은 이해력이 어두워져서, 그들 속에 무지가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sup>(19)</sup> 그들은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자신을 방탕에 내맡겼습니다.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을 탐욕스럽게 행합니다.

[엡 5:8]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십시오. [고후 2:13]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내 영 안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말 2:15-16]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을 하나로 만드시지 않았느냐? 그분께서는 영이 넉넉하신데 어쩌서 하나이나?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씨를 얻고자 하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영을 주의하고 누구도 젊어서 얻은 아내를 배신하지 마라.<sup>(16)</sup>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혼하는 사람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다. 그러니 너희의 영을 주의하고 배신하지 마라.

- K. 하나님께서 우주 안에서 비추심은 옛 창조물을 산출하셨다. 이제 그분이 우리의 마음 안에 비추심은 우리를 새 창조물로 만든다. 하나님께서 비추심은 새 언약의 사역자들과 그들의 사역을 산출한다 — 창 1:3, 16, 고후 4:6, 엡 5:8-9, 갈 5:22-23.

[창 1:3]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이 생기라.” 그러자 빛이 생겼다.

[창 1:16] 하나님께서 빛나는 큰 물체 둘을 만드셔서, 그 가운데 큰 것은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것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다.

[고후 4:6]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엡 5:8-9]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십시오.<sup>(9)</sup> (빛의 열매는 온갖 선과 의와 참된 것에 있습니다.)

[갈 5:22-23] 그러나 그 영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자와 선함과 신실함과<sup>(23)</sup> 온유와 자제이니, 이런 것들을 반대할 율법이 없습니다.

- L. 하나님의 내적 빛남, 곧 하나님의 기묘한 빛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빛을 비추도록 우리 마음 속에 빛을 비추신다(벧전 2:9, 고후 4:6). “그때 너는 보고서 환하게 웃고 / 네 마음은 두근거리며 기쁨에 벅차리니” (사 60:5 상).

[벧전 2:9]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받은 족속이고, 왕들인 제사장 체계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자신의 기묘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미덕들을 널리 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후 4:6]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 60:5] 그때 너는 보고서 환하게 웃고 / 네 마음은 두근거리며 기쁨에 벅차리니 / 바다의 풍성이 네게로 향하고 / 민족들의 재물이 네게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이다.

- M. 우리는 매일 아침에 주님과 개인적이고 내밀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주입받아 하나님으로 빛나고 하나님을 비추어 낼 수 있다 — 출 34:29-35, 마 5:14-16, 빌 2:14-16 상, 엡 5:8-9.

[출 34:29-35]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의 손에는 증거판 두 개가 들려 있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으므로 모세의 얼굴 피부가 빛났으나, 모세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sup>(30)</sup>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보니, 그 얼굴 피부가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sup>(31)</sup> 그러나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모두 모세에게 돌아왔고 모세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sup>(32)</sup> 그 후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가까이 왔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시나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sup>(33)</sup> 모세는 말을 마치고 자기 얼굴을 너울로 가렸다. <sup>(34)</sup>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 앞으로 들어가 그분과 말씀을 나눌 때에는 너울을 벗고 나올 때까지 쓰지 않았다. 모세가 나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할 때에는 <sup>(35)</sup>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 곧 모세의 얼굴 피부가 빛나는 것을 보았다. 그 후에 모세는 그분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 들어갈 때까지 다시 자기 얼굴을 너울로 가렸다.

[마 5:14-16]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에 있는 성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sup>(15)</sup>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둬므로, 그것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춥니다. <sup>(16)</sup> 이와 같이 여러분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여러분의 좋은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벧 2:14-16]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따지지 마십시오. <sup>(15)</sup> 그것은 여러분을 나무랄 데 없고 순결하게 하여,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대 가운데서 세상의 발광체들로 빛나서 <sup>(16)</sup> 생명의 말씀을 밝히십시오. 그래서 내가 헛되이 달리지 않았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도록 해주십시오.

[엡 5:8-9]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십시오. <sup>(9)</sup> (빛의 열매는 온갖 선과 의와 참된 것에 있습니다.)

N. “그러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 힘 있게 돋는 해와 같게 하여 주십시오.” — 사 5:31.

[사 5:31] 오, 여호와님! 주님의 원수들은 모두 이렇게 멸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 그러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 힘 있게 돋는 해와 같게 하여 주십시오.” / 그 이후로 그 땅은 사십 년 동안 평온하였다.

O. “그러나 의인들의 길은 여명의 빛 같아 / 점점 더 밝게 빛나 한낮에 이른다.” — 잠 4:18.

[잠 4:18] 그러나 의인들의 길은 여명의 빛 같아 / 점점 더 밝게 빛나 한낮에 이른다.

P. 시편 22 편의 표제는 ‘새벽 암사슴’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그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곡조를 가리킬 것이다. 여기에서 ‘새벽 암사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분은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다(눅 24:1). 암사슴은 뛰어다니고 뛰어오르는 사슴을 말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뛰어다니시는 분이시다(아 2:8-9).

[눅 24:1] 그 주의 첫날 이른 새벽에, 그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갔다.

[아 2:8-9]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 지금 그이가 오고 있어요, / 산들을 뛰어오르고 / 언덕들을 뛰어넘어. <sup>(9)</sup> 내 사랑하는 이는 가젤이나 젊은 수사슴 같답니다. / 지금 그이가 우리 담 뒤에서 서성이며 / 창문들 틈으로 들여다보고 /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군요.

Q. “그때에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 마 13:43.

[마 13:43] 그때에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III. 빛 비춤은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긍휼을 주실 때마다, 그분의 얼굴빛이 우리의 빛이고, 그분의 나타남이 우리의 이상이며,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유익이다 — 롬 9:15, 행 9:3-4, 사 50:10-11, 민 6:25-26, 사 5:20, 비교 요 3:19, 욥 3, 살후 2:10-11, 잠 23:23, 요 5:44.

[롬 9:15]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롬 9:3-4] 나의 형제들, 곧 육체에 따른 나의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길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sup>(4)</sup>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들의 자격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신 것과 봉사과 약속들이 있습니다.

[사 50:10-11] 너희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가 누구며 / 그분 종의 목소리를 듣는 이가 누구냐? / 어둠 속을 거닐어 / 빛이 없는 이가 누구냐? / 그런 이는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고 /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sup>(11)</sup> 참으로, 불을 피우고 / 햇불로 자신을 두른 너희는 모두 / 너희의 불빛 가운데로 / 너희가 불붙인 햇불 가운데로 들어가거라. /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은 / 바로 너희가 고통 가운데 놓게 되는 것이다.

[민 6:25-26]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sup>(26)</sup>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밝은 표정을 하시고 그대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사 5:20] 악을 선이라 하고 / 선을 악이라 하는 이들, / 어둠을 빛에 두고 / 빛을 어둠에 두는 이들, / 쓴 것을 단것에 두고 / 단것을 쓴 것에 두는 이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요 3:19] 그 심판은 이렇습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살후 2:10-11] 또한 온갖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하는 사람들을 속일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sup>(11)</sup>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힘을 보내시어 그들이 거짓을 믿도록 하시는 것은

[잠 23:23]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마라. / 지혜와 교훈과 명철을 사라.

- A. 빛 비춤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빛 비춤을 원하고 받아들여야 하며, 간절히 주님 한 분만을 단일하게 추구하겠다고 마음을 정해야 한다 — 시 139:23-24, 빌 2:12-16, 대하 12:14, 16:12, 34:1-3, 시 27:8, 73:25, 눅 11:33-36.

[시 139:23-24] 오, 하나님! 저를 살피시고 제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 저를 시험하시고 제 근심을 알아주십시오. <sup>(24)</sup> 제게 무슨 해로운 길이 있는지 보시고 / 저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빌 2:12-16]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순종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십시오. <sup>(13)</sup>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sup>(14)</sup>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따지지 마십시오. <sup>(15)</sup> 그것은 여러분을 나무랄 데 없고 순결하게 하여,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대 가운데서 세상의 발광체들로 빛나서 <sup>(16)</sup> 생명의 말씀을 밝히십시오. 그래서 내가 헛되이 달리지 않았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도록 해 주십시오.

[대하 12:14] 르호보암이 악한 일을 하게 된 것은 그가 여호와를 찾기로 마음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하 16:12] 아사 통치 제삼십구 년에 그의 발에 병이 났다. 그의 병이 매우 심각하였는데, 그는 병에 걸려서도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사들을 찾았다.

[대하 34:1-3] 요시야는 팔 세에 다스리기 시작하여 예루살렘에서 삼십일 년 동안 다스렸다. <sup>(2)</sup> 그는 여호와와 눈이 올바른 일을 하였고, 자기 조상 다윗의 길을 따르며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치우치지 않았다. <sup>(3)</sup> 그는 통치 제팔 년에 아직 어린데도 자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고, 제십이 년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산당들과 아세라상들과 조각한 우상들과 부어 만든 형상들을 일소하기 시작하였다.

[시 27:8]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실 때에 / 제 마음으로 주님께 ‘오, 여호와님! 제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시 73:25] 하늘에 주님 외에 누가 제게 있겠습니까? / 땅에서도 주님 외에 바랄 것 없습니다.

[눅 11:33-36]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 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도록 합니다. <sup>(34)</sup> 그대의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대의 눈이 단일하면 온몸이 밝지만, 그대의 눈이 악하면 온몸이 어둡습니다. <sup>(35)</sup> 그러므로 그대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sup>(36)</sup> 그대의 온몸이 밝아 어두운 부분이 조금도 없다면, 등불이 그 빛을 그대에게 비출 때처럼, 온몸이 온전히 밝을 것입니다.”

- B. 빛 비춤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열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며, 어떤 것도 보류하거나 숨기지 않은 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두어야 한다. 주님께 자신을 닫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평하는 데 전문가들이다 — 고후 3:16, 잠 20:27, 마 7:1-5, 눅 6:36-37, 41-42.

[고후 3:16]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잠 20:27] 사람의 영은 여호와와 등이라 / 내적 존재의 모든 깊은 곳을 살핀다.

[마 7:1-5] 여러분이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마십시오. <sup>(2)</sup> 왜냐하면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판단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평가하는 그 평가로 여러분도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sup>(3)</sup>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그대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하지 못하십니까? <sup>(4)</sup> 보십시오, 그대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그대가 형제에게 ‘내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어 주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sup>(5)</sup> 위선적인 사람들이여, 먼저 그대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십시오. 그 후에야 분명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입니다.

[눅 6:36-37]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같이 여러분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sup>(37)</sup>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결코 판단받지 않을 것입니다. 유죄판결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결코 유죄판결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눅 6:41-42]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그대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하지 못하십니까?

<sup>(42)</sup> 그대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대의 형제에게 ‘형제여, 내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 주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위선적인 사람들이여, 먼저 그대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십시오. 그 후에야 분명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입니다.

- C. 빛 비춤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멈추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조망, 우리가 사물을 보는 방식,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견을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을 완전히 멈춘 어떤 사람이 주님께 나올 때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지극히 단일하고 단순할 수 있다 — 눅 10:38-42, 요 11:21-28, 사 40:31, 마 5:3, 눅 18:15-17, 사 66:1-2.

[눅 10:38-42] 예수님의 일행이 길을 가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니,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였는데, <sup>(39)</sup> 그녀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으나, <sup>(40)</sup> 마르다는 시종드는 일이 많아 분주하였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는데도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마리아에게 나를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자, <sup>(41)</sup>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여, 마르다여, 그대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애쓰지만, <sup>(42)</sup>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요 11:21-28]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sup>(22)</sup>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실 줄 압니다.” <sup>(23)</sup>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그대의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라고 하시니, <sup>(24)</sup> 마르다가 말씀드렸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sup>(25)</sup>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sup>(26)</sup>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가 이것을 믿습니까?” <sup>(27)</sup>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예, 주님. 나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sup>(28)</sup> 마르다가 이 말을 하고 돌아가 자기 여동생 마리아를 살며시 불러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니,

[사 40:31] 여호와를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 독수리처럼 날개 치며 올라가겠고 /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 걸어도 피곤하지 않으리라.

[마 5:3]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눅 18:15-17] 사람들이 어린 아기들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자,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그들을 꾸짖었다. <sup>(16)</sup>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sup>(17)</sup>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누구도 그 안으로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 66:1-2]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하늘은 나의 보좌요 / 땅은 나의 발 받침대이니 / 너희가 나를 위하여 건축할 집이 어디 있겠으며 / 내가 안식할 곳이 어디 있겠느냐? <sup>(2)</sup>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 이 모든 것이 생겨났다. 여호와와 선포이다. / 그러나 내가 이러한 사람을 굶어보리니 곧 가난한 사람과 / 통회하는 영을 가진 사람과 내 말에 떠는 사람이다.

- D. 빛 비춤을 받으려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의 빛이나 밖에서 말하는 그 영의 사역자들과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한다 — 행 22:10, 아 5:4-6, 고후 10:3-5, 11:2-3, 민 16:1-7, 33-39, 17:1-8, 비교 출 33:11, 14.

[행 22:10] 내가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하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거기에 네가 해야 할 모든 일에 관하여 말해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 5:4-6] 내 사랑하는 이가 문틈으로 그이 손을 들이밀자 / 내 속부분들이 그이를 간절히 바랐어요.

<sup>(5)</sup> 내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어 드리려 일어나니 / 내 손에서는 몰약이, / 내 손가락에서는 몰약즙이 / 문빗장 손잡이 위로 똑똑 떨어졌어요. <sup>(6)</sup> 내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어 드렸으나 / 내 사랑하는 이는 그만 몸을 돌려 가 버리고 말았네요. / 그이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었지요. / 그이를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하고서 / 그이를 불렀건만—그이는 대답 없었어요.

[고후 10:3-5]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육체 안에서 행하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sup>(4)</sup> 우리가 싸우는 데 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능력인데, 그것은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고, <sup>(5)</sup>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며, 각종 사상을 사로잡아 와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합니다.

[고후 11:2-3]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에게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sup>(3)</sup> 전에 뱀이 간교하게 하위를 속였던 것처럼, 나는 다만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성과 순수성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민 16:1-7] 레위의 증손이고 고핫의 손자이며 이스할의 아들인 고라가 르우벤 자손인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과 함께 사람들을 모아 <sup>(2)</sup> 모세와 맞서 일어나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회중의 인도자 이백오십 명도 함께하였는데, 이들은 총회 가운데에서 부름받은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sup>(3)</sup> 그들이 함께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말하였다. “그대들은 너무 분수에 지나치요. 온 회중이 각자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들은 여호와와 회중보다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요?” <sup>(4)</sup> 모세는 이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sup>(5)</sup> 그리고 나서 모세는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에 여호와께서 누가 그분께 속한 사람이고 누가 거룩한 사람인지를 알려 주실 것이며, 그 사람을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을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sup>(6)</sup>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그대 고라와 그대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sup>(7)</sup>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으십시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레위 자손이며, 여러분이야말로 너무 분수에 지나칩니다.”

[민 16:33-39] 그리하여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스올로 내려갔고, 땅은 그들을 덮어 버렸다. 그들은 이렇게 회중 가운데서 멸망하였다. <sup>(34)</sup> 그들의 비명에 그들 주위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도망치며 “땅이 우리도 삼킬지 모른다!”라고 하였다. <sup>(35)</sup> 그때 여호와에게서 불이 나와 향을 바친 이백오십 명을 태워 버렸다. <sup>(36)</sup>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sup>(37)</sup>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하여, 불 속에서 향로들을 꺼내 오고 그 속의 불은 다른 곳에 흩어 버리게 하여라. 그 향로들은 거룩하다. <sup>(38)</sup> 죄를 지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가져온 향로를 쳐서 제단에 입힐 판을 만들어라. 왜냐하면 그 향로들은 여호와에게 바쳐져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의 표시가 될 것이다.” <sup>(39)</sup> 제사장 엘르아살은 불에 타 버린 사람들이 바친 그 놋 향로들을 가져다가 쳐서 제단에 입힐 판을 만들었는데,

[민 17:1-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sup>(2)</sup>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서 막대기를 거두되, 각 조상의 집안마다 하나씩 곧 그들 조상 집안에 따라 그 모든 인도자에게서 열두 개의 막대기를 거두어라. 너는 그 막대기 위에 각 사람의 이름을 써야 한다. <sup>(3)</sup> 레위의 막대기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각 조상 집안의 우두머리마다 막대기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sup>(4)</sup> 너는 회막 안,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판 앞에 그 막대기들을 놓아두어야 한다. <sup>(5)</sup> 내가 선택하는 바로 그 사람의 막대기에 썩이 날 것이니, 나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불평하는 것 곧 나에게 불평하는 것을 멈추게 하겠다.” <sup>(6)</sup>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인도자들이 자기들의 조상 집안에 따라 막대기를 각자 하나씩, 곧 열두 개의 막대기를 그에게 주었다. 아론의 막대기도 그 막대기들 가운데 있었다. <sup>(7)</sup> 모세는 그 막대기들을 증거막 안 곧 여호와 앞에

놓아두었다. <sup>(8)</sup> 다음 날 모세가 증거막 안에 들어가 보니, 레위 집안을 위한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 있었다. 심지어 그 막대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익은 아몬드가 달려 있었다.

[출 33:11] 여호와와 마치 사람이 자기 동반자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시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영으로 돌아온 뒤에도 눈의 아들이자 모세를 시종드는 청년인 여호수아는 천막을 떠나지 않았다.

[출 33:14]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 E. 빛 비춤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계속 빛 속에 살아야 한다 — 사 2:5, 요일 1:7, 히 9:14, 10:22, 마 5:3, 8, 14, 시 119:105, 계 1:20, 시 36:8-9.

[사 2:5] 야곱 집아, 와서 여호와와 빛 안에서 행하자.

[요일 1:7]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히 9:14] 더욱이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흠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의 양심을 얼마나 정결하게 하겠습니까?

[히 10:22]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악한 양심에서 떠났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어졌으니, 진실한 마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갑시다.

[마 5:3]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 5:8]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 5:14]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에 있는 성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시 119:105] ı (눈) / 주님의 말씀은 제 발의 등불이요 / 제 길의 빛입니다.

[계 1:20] 네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과 일곱 금등잔대의 비밀은 다음과 같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전달자이고,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이다.

[시 36:8-9] 그들은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적셔지며 /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기쁨의 강을 마시게 하십니다. <sup>(9)</sup>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으니 /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봅니다.

- IV. 결국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하시고 빛 비춤을 주셨을 때 욥은 이렇게 말했다. “제가 주님에 대해 귀로만 들어 왔으나, /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제 자신을 혐오하며 /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 욥 42:5-6.

[욥 42:5-6] 제가 주님에 대해 귀로만 들어 왔으나 /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보았습니다. <sup>(6)</sup> 그러기에 제 자신을 혐오하며 /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 A.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 욥은 하나님을 보았고, 개인적인 체험에서 하나님을 얻었으며, 자신을 혐오했다 — 욥 38:1-3, 42:1-6.

[욥 38:1-3] 그때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말씀하셨다. <sup>(2)</sup> “무지한 말로 / 내 의결을 어둡게 하는 이자가 누구란 말이나? <sup>(3)</sup> 당장 용사처럼 허리에 띠를 동여매라. / 네게 묻겠으니 고해 보아라.

[욥 42:1-6] 그러자 욥이 여호와께 응답하여 말하였다. <sup>(2)</sup>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며 / 주님의 목적은 어떤 방해도 받을 수 없음을 저는 압니다. <sup>(3)</sup>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의결을 가리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 그러니 제가 깨닫지도 못하면서 /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sup>(4)</sup>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으니 들어 보십시오. / 제가 주님께 여쭙겠으니 제게 알려 주십시오. <sup>(5)</sup> 제가 주님에 대해 귀로만 들어 왔으나 /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보았습니다. <sup>(6)</sup> 그러기에 제 자신을 혐오하며 /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 B. 신약의 의미에서 하나님을 뵈는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과 동일하다(고후 3:16, 18, 4:6-7).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알고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자신을 혐오하고 부인할 것이다(욥 42:5-6, 엡 5:13, 눅 5:8, 마 16:24, 눅 9:23, 14:26).

[고후 3:16]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고후 3: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고후 4:6-7]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sup>(7)</sup>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엡 5:13]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에 의해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들을 드러나게 하는  
 것마다 빛이기 때문입니다.  
 [눅 5:8]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였는데,  
 [마 16:24]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마 9:23]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집에 가시어, 피리 부는 사람들과 떠들썩한 무리를 보시고  
 [마 14:26]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 “유령이다!”라고 하며  
 무서워 소리 질렀다.

- C.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얼마나 많이 깨닫는가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보는가에 달려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매일 아침 부흥이 필요하다. 아침 부흥은 우리가 주님을 보는 시간이다 — 마  
 5:8, 시 27:4, 8, 고후 3:18.  
 [마 5:8]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 27:4] 내가 여호와께 청하여 온 한 가지 / 그것을 구하리니 / 내 평생에 / 여호와의 집에 거주하며  
 /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네.  
 [시 27:8]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실 때에 / 제 마음으로 주님께 ‘오, 여호와님! 제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고후 3: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 D. 욕의 문제는 그에게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위치(욥 11:12 각주 1 을  
 보십시오)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얻었느냐에 근거한다 — 시 27:8, 105:4, 빌 3:8, 마 25:3-4, 9, 잠  
 23:23, 계 3:18, 고후 3:18, 4:17, 벧전 2:7, 단 5:27, 9:23, 10:11, 19.  
 [시 27:8]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실 때에 / 제 마음으로 주님께 ‘오, 여호와님! 제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시 105:4] 여호와와 그분의 힘을 찾으며 / 늘 그분의 얼굴을 찾아라.  
 [빌 3:8]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마 25:3-4] 왜냐하면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져갈 때에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으나, <sup>(4)</sup>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마 25:9] 현명한 처녀들은 ‘우리와 여러분이 쓰기에 충분하지 못할 듯하니, 차라리 기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사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잠 23:23]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마라. / 지혜와 교훈과 명철을 사라.  
 [계 3:18] 그래서 나는 너에게 권면한다. 불에 제련한 금을 나에게서 사서 풍성하게 되도록 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도록 하며, 안약을 사서 너의 눈에 발라서  
 보도록 하여라.  
 [고후 3: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고후 4:17] 우리가 받는 환난은 일시적이고도 가벼운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 냅니다.

[벧전 2:7] 그러므로 그분은 믿는 여러분에게는 보배이시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된 돌’이시며,  
 [단 5:27] ‘데렐’은 왕을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며,  
 [단 9:23] 그대가 간청을 드리기 시작할 때 명령이 내려져, 내가 그대에게 말해 주려고 온 것은 그대가 보배로운 자체인 까닭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이해하고 이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단 10:11]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보배로운 사람 다니엘이여, 이제 그대에게 하는 말을 이해하고 그대가 있는 곳에서 일어서십시오. 나는 그대에게 보내어졌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 말을 하자, 나는 떨면서 일어섰다.  
 [단 10:19] 그가 말하였다. “보배로운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강해지고 또 강해지십시오.” 그가 나에게 말하자, 나는 힘을 얻어 말하였다. “어르신, 제게 힘을 주셨으니 말씀하십시오.”

- E.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백성을 다루시는 목적은 그들이 모든 것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만을 그들의 유익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백성이 다른 모든 것보다 그분을 얻고, 그분께 동참하며,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을 점점 더 누림으로, 결국 그들의 누림이 가장 최고도에 도달하여 그들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다 — 마 5:3, 시 43:4, 73:25-26, 빌 3:8-9, 계 21:2.  
 [마 5:3]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 43:4] 그리하시면 저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 저의 큰 기쁨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 오, 하나님, 저의 하나님! / 저는 수금 타며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시 73:25-26] 하늘에 주님 외에 누가 제게 있겠습니까? / 땅에서도 주님 외에 바랄 것 없습니다.<sup>(26)</sup> 제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도 / 하나님은 제 마음의 반석이시며 제 영원한 뭉이십니다.  
 [빌 3:8-9]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sup>(9)</sup>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계 21: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 F.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그분의 선민을 다루시는 목적에 관해 욥기에 나오는 위대한 질문에 대한 위대한 답변이 되는, 신약 전체의 내재적인 의미이다 — 욥 10:13, 엡 3:9.  
 [욥 10:13]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일들을 주님 마음속에 감추셨습니다. / 저는 이러한 것이 주님께 있는 줄 압니다.  
 [엡 3:9]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시어,
- V. 이사야는 낙심해 있었을 때 영광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았다. 이 이상을 본 결과 이사야는 종결되고 죽게 되었으며,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 사 6:1-8, 비교 계 22:1, 대하 26:4-5, 16-22.

[사 6:1-8] 웃시아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보았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드리워져 있었다.<sup>(2)</sup>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떠 있었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서 나머지 둘로 날고 있었다.<sup>(3)</sup> 그들이 서로를 향하여 부르며 말하였다. /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 /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여라.”<sup>(4)</sup> 부르는 이의 음성에 문지방의 기초가 흔들렸고, 집은 연기로 가득 찼다.<sup>(5)</sup> 그때 내가 말하였다. / “내게 화가 있겠구나, 내가 이제 죽게 되었음이라! / 내가 입술 부정한 사람이고 / 입술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하면서 /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 눈으로 보았음이라!”<sup>(6)</sup>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솟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왔다.<sup>(7)</sup> 그가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 “이제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 너의 죄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정결하게 되었다.”<sup>(8)</sup>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랴? 누가 우리를 위해 가랴?”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 주십시오.”

[계 22:1]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하 26:4-5] 그는 자기 아버지 아마사가 한 모든 일을 따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sup>(5)</sup> 하나님의 이상을 이해하는 스가랴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웃시야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찾았다.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번영하게 하셨다.

[대하 26:16-22] 그러나 그는 강성해지자, 마음이 높아져 멸망을 자초하고 말았다. 그는 여호와 그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여호와와 성전에 들어가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려고 하였다.<sup>(17)</sup> 그러자 제사장 아사랴가 그를 따라 들어갔으며, 여호와와 용감한 제사장 팔십 명이 아사랴와 함께하였다.<sup>(18)</sup> 그들이 웃시야왕을 막아서며 말하였다. “웃시야왕이시여, 여호와께 향을 피우는 것은 왕의 몫이 아니라 향을 피우도록 헌신된 제사장들 곧 아론의 자손의 몫입니다. 그러니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왕께서 범법하셨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sup>(19)</sup> 그때 웃시야가 향을 피우는 데 쓰는 향로를 손에 들고서 화를 냈다.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는 순간, 여호와와 그의 집 분향단 옆에 있던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sup>(20)</sup>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그를 바라보니, 그의 이마에 나병이 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를 재빨리 그곳에서 쫓아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셨으므로, 웃시야 자신도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sup>(21)</sup> 그리하여 웃시야왕은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지냈다. 그는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주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여호와와 그의 집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왕의 아들인 요담이 왕궁 일을 맡아 그 땅의 백성을 재판하였다.<sup>(22)</sup> 아모스의 아들 신언자 이사야가 웃시야의 나머지 행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하였다.

- A.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백성의 반역과 죄악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여전히 영광 가운데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다 — 사 5:20, 6:1-4, 계 22:1.

[사 5:20] 악을 선이라 하고 / 선을 악이라 하는 이들, / 어둠을 빛에 두고 / 빛을 어둠에 두는 이들, / 쓴 것을 단것에 두고 / 단것을 쓴 것에 두는 이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사 6:1-4] 웃시야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보았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드리워져 있었다.<sup>(2)</sup>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떠 있었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서 나머지 둘로 날고 있었다.<sup>(3)</sup> 그들이 서로를 향하여 부르며 말하였다. /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 /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여라.”<sup>(4)</sup> 부르는 이의 음성에 문지방의 기초가 흔들렸고, 집은 연기로 가득 찼다.

[계 22:1]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 B. 그리스도만이 우주 안에서 유일하게 선택한 것이시다. 우리는 다른 모든 대상(對象)에서 돌이켜 주의를 집중하여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외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 히 12:1-2 상.

[히 12:1-2]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구름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를 쉽게 얹어매는 죄를 떨쳐 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sup>(2)</sup>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 C. 이사야는 제단에서 가져온 타고 있는 숯으로 정결하게 되었다. 스랍이 이 타고 있는 숯을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댄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효능을 상징하는데, 이 구속은 십자가에서 성취되었고, 불태우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불타는 영에 의해 적용된다 — 사 6:6 하-7 상, 4:4, 비교 눅 12:49, 계 4:5.

[사 6:6]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왔다.  
 [사 4:4] 그때 주님은 심판하시는 영과 불태우시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 내시고 예루살렘의 핏자국을 그 가운데서 깨끗하게 없애실 것이다.  
 [눅 12:49]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 4:5] 그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천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일곱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이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 D. 하나님을 본 결과는 하나님에 의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에 의해 깨끗하게 된 결과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것이다 — 사 6:6-8, 요일 1:7-9.

[사 6:6-8]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왔다. <sup>(7)</sup> 그가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 “이제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 너의 죄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정결하게 되었다.” <sup>(8)</sup>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랴? 누가 우리를 위해 가랴?”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 주십시오.”  
 [사 1:7-9] 너희 땅은 황폐하고 / 너희 성들은 불에 탔으며 / 너희 밭은 너희 눈앞에서 / 이방인들이 먹어 치워 / 이방인들에게 파괴된 어떤 것처럼 황폐하다. <sup>(8)</sup> 시온의 딸은 / 포도원의 초막처럼 / 오이밭의 오두막처럼 / 포위된 성처럼 남아 있다. <sup>(9)</sup> 만군의 여호와께서 / 우리 가운데 얼마를 살아남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 우리는 벌써 소돔 같고 /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라.

- E. 이사야는 정결하게 된 후에 삼일 하나님께 위임을 받았다.

1. “내가 누구를 보내랴? 누가 우리를 위해 가랴?” — ‘내가’와 ‘우리’라는 말은 말씀하시는 분께서 삼일 하나님임을 가리킨다 — 사 6:8 상, 골 2:9.

[사 6:8]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랴? 누가 우리를 위해 가랴?”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 주십시오.”

[골 2:9]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2.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 주십시오.” —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그리스도를 사는 상태로 이끄시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의 거룩함으로 적셔지고, 그분의 의 안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 사 6:8 하, 행 13:47, 사 49:6, 빌 1:21 상, 비교 창 3:24, 고전 1:30.

[사 6:8]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랴? 누가 우리를 위해 가랴?”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 주십시오.”

[행 13:47]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세웠으니, 너는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 49:6]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 이스라엘의 보존된 이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니 / 나는 너를 또한 민족들의 빛으로 세워 /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구원이 되게 하리라.”

[빌 1:21]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창 3:24]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쫓아내시고 나서, 에덴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돌며 불을 뿜어내는 칼을 두시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고전 1:30]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 VI. 우리는 다윗이 기도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기도해야 한다 — “오, 하나님! 저를 살피시고 제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 저를 시험하시고 제 근심을 알아주십시오. 제게 무슨 해로운 길이 있는지 보시고 / 저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 시 139:23-24.

[시 139:23-24] 오, 하나님! 저를 살피시고 제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 저를 시험하시고 제 근심을 알아주십시오. <sup>(24)</sup> 제게 무슨 해로운 길이 있는지 보시고 / 저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 A.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살피심과 시험하심을 통과할 때 우리 안에 그 어떤 것이든 해로운 길(어떤 것이든 우상숭배의 길이나 고통으로 이끄는 길)이 있는지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 B. 하나님의 빛이 없다면 누가 자신을 알 수 있는가?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다윗이 기도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